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I. 출장개요

- 목적 : 선진국 인사·복무제도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인사업무 역량강화 도모
- 기간 : 2017.3.30~4.7(8박9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 프랑스 (1) : 파리시청
 - 스위스 (2) : 인사관리협회(HR SWISS), 쥐리히주 정부
 - 이탈리아(3) : 인사관리협회(AIDP), 볼로냐대학 등
- 여행자 인적사항 : 총무과 지방행정6급 박○○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국가별	방문기관	주요 연수내용
프랑스	파리시청	○ 파리시청 공공기관 인사 및 평가제도 운영현황 파악 및 비교·분석
스위스	인사관리협회 (HR SWISS)	○ 스위스 내 지방정부/공공기관 인사 및 평가제도 운영 현황 파악 및 비교·분석
	쥐리히주 정부	○ 쥐리히주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실태
이탈리아	인사관리협회 (AIDP)	○ 이탈리아 내 지방정부/공공기관 인사 및 평가제도 운영 현황 파악 및 비교·분석
	볼로냐대학 인사관리경영대학원	○ 역량 전문성 강화 및 성과반영 시스템 운영 실태 파악

○ 주요 일정

날 짜	지 역	주 요 일 정	비 고
제1일 3/30 (목)	광 주 인 천 파 리	인천공항 대한항공 A카운터 집결 후 출국 수속 인천공항 출발 / 파리 향발 파리 공항 도착 후 석식	
제2일 3/31 (금)	파 리	① 파리시청 방문 ○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 ○ 샹제리제 거리, 공코드 광장, 몽마르뜨 언덕	
제3일 4/1 (토)	파 리 로 잔	○ 베르사이유 궁전 ○ 에펠탑 & 세느강 유람선 탑승(주간) 파리 역 출발 / 스위스 로잔 향발 로잔 역 도착 후 인터라켄 이동	
제4일 4/2 (일)	인터라켄 쾨리히	○ 알프스 영봉 중의 하나인 융프라우 등정 쾨리히 이동(125KM 약 2시간) 후 석식	
제5일 4/3 (월)	쾨리히 밀라노	② HR SWISS(인사관리협회) 방문 ○ 쾨리히 호수, 프라우 윈스터, 페스탈로찌 동상, 밀라노 이동 (280KM 약 4시간) ③ 쾨리히 주 정부 방문 ○ 스포르체스코성, 성 두오모 성당, 갤러리아 거리, 라스칼라좌 등	
제6일 4/4 (화)	밀라노 베니스	④ AIDP(인사관리협회) 방문 베니스 이동 (285KM 약 4시간) ○ 두칼레 궁전, 산 마르코 광장, 탄식의 다리, 베니스 운하 등 ○ 베니스 수상택시 탑승	
제7일 4/5 (수)	베니스 볼로냐 피렌체 로 마	볼로냐 이동(155KM, 약 2시간) ⑤ 볼로냐대학 인사관리경영대학원 방문 피렌체 이동(120KM 약 2시간) ○ 성모사원, 두오모 성당, 산조반니 세례당, 시노리아 광장, 미켈란젤로 언덕, 단테의 집 등 로마 이동(300KM, 약 4시간)	
제8일 4/6 (목)	로 마	○ 바티칸 박물관(VIP 입장), 성 베드로 성당 ○ 콜롯세움(내부), 포로 로마노,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로마 공항 출발 / 인천 향발 로마 → 인천	
제9일 4/7 (금)	인 천	인천 공항 도착 후 해산	

○ 일반 현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 파리 • 인구 : 약 6,720만명 • 면적 : 549천km²(한반도의 2.5배) • 민족 : 골족, 로마족, 노르만족, 프랑크족 혼합 • 언어 : 프랑스어 • 건국일 : 1789년 7월 14일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 베른 • 인구 : 약 720만명 • 면적 : 41.284천km²(한반도의 1/5) • 민족 : 독일인, 프랑스인, 이태리인 • 언어 :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 종교 : 카톨릭, 개신교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 로마 • 인구 : 약 5,747만명 • 면적 : 301.230천km²(한반도의 1.5배) • 언어 : 이태리어 • 종교 : 카톨릭

○ 주요 내용

1. 프랑스의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사(파리시청)

- 파리시 행정은 16개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시행정을 총괄하는 시 사무국, 정치영역과 행정영역을 연계하는 시장의 정치담당부, 파리시의회 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있다

16개 부서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지역신문 발행), 감사와 통제, 국제관계, 일반행정(인사, 재무, 업무조정), 재정 및 경제사무(파리시 재장관리), 보건위생건강, 문화사업, 학교교육, 도시계획, 건축(신축, 보수관리), 주거(규제조건 통제, 허가, 부동산매매), 청소년과 스포츠, 공원녹지대 관리, 환경보호, 통신업무, 도로행정(교통순환 향상, 주차)이 있으며, 파리시의 사회활동중앙원(사회부조서비스)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가족(수입원, 주거분야, 혜택카드,교육,직업), 장애인(주거, 일상생활의 편의교통), 노인(수입원, 일상생활의 편의교통, 휴식공간), 청소년(식사, 일상생활의 편익), 여러종류의 부조(수입원, 주거, 식당, 직업, 의료), 수입빈궁자를 관장하고 있다

- 파리시의 구청장은 구의회를 구성하는 구의회의원 사이에서 당선된다 구청장에게 1명 내지 여러명의 보좌관을 두는데 1명은 파리시의 의원을 해야한다. 나머지는 구의회의원을 둔다. 구청장의 권한은 국가사무로 주민등록, 교육사무, 선거사무와 지자체사무로 학교급식주관, 도시계획등이 있다.

- 지방공무원의 직급체계는 A계급, B계급, C계급 이다
A계급은 정책발안, 정책설계, 정책추진, 정책조정 역할담당을 하며 전체인원의 8.2%이며, B계급은 정책집행담당을 하며 13.2%, C계급은 행정사무의 정책집행을 실천에 옮기는 전문 또는 단순 집행기능을 위주로하는 공무원과 단순노무원으로 78.6%이다
- 지방공무원의 주요원칙으로 단일성(통일성)의 원칙(모든 지방공무원은 같은 신분법에 의거해야한다), 동질성의 원칙(근무조건, 채용, 조직 등에 있어 국가공무원과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특수성의 원칙(지방공무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있다
- 자치단체의 인사권한은 다음의 사항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규율부분에 있어서 공평보장은 지방의원과 동수 대표인사를 포함하는 동수 위원회 의해 보장된다.
승진부분에 있어서 시읍면의회에서 결정된 승진표는 국가대표에 의해 합법적인 시각에서 통제되어 행사된다. 다음으로 시읍면장은 지명절차를 밟고 승진서열명부에의거 승진을 명하게 된다



2. AIDP(인사관리협회)

AIDP(인사관리협회)는 이탈리아 인사관리협회이며 유럽 인사 하부기관으로 전 유럽 인사회장이기도 하며 약 50년 되었다.

전체 26만명이 일하고 있으며 32개 각국 지부를 가지고 있다

AIDP(인사관리협회)에서는 인사관련 교육도 실시하며 인사관련 책을 약 2달에 한번쯤 편집하여 발간한다.

공무원은 정년을 보장하고 사기업은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수입은 적지만 선호하여 수천명이 공채시험에 응시하지만 매년 채용을 하지 않고 2~3년에 한번 채용한다

남자 여자 똑같이 일하고 임금 등 같은 대우를 받고 성차별이 없이 법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만 능력 적용과 인센티브가 없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똑 같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

다. 평가는 민간기업은 1년에 약 3%정도, 공기업은 약 9%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평가가 많은 이유는 부서의 평가가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고 관대하여서 그런다고 한다.

공기업 직원들 평가시는 다음 출근날 의사가 정말 아파서 평가를 내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민간기업 수준의 평가를로 낮추기 위해서 한다. 즉 일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기업은 인센티브를 다같이 나누워 가지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발전적, 의욕적, 창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통계를 하였고, 정부 개편시마다 수정을 하고 있으며 곧 인사관련법령을 개정 할 예정이며 일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3년간 좋은평가를 못 받은 직원은 면직 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는 주(州), 도(道) 및 코뮤네(우리의 邑面洞)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등급은 카테고리 A, B, C, D로 구성되어 있다. 카테고리 A는 일반사무지식이 필요한 직위(사무보조), 카테고리 B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 업무에 부분적 책임이 있는 직위(사무직, 기술직), 카테고리C는 중간 관리직(과장급), 카테고리D는 고급관리직(국장급)이다



3. 세계 최초 대학 “블로냐대학”

블로냐대학은 1088년에 건립된 세계 최초 대학이며 “모두”라는 의미의 새로운 학교 이탈리아 블로냐에서 생겼다. 중세에는 모든 영주의 집안이 젊은이들의 학교였다. 영주는 그의 신하나 친척들이 맡긴 아이들을 훌륭한 기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켰고, 기사로 공식 서임된 젊은이는 영주의 집을 떠나 사회에 진출하였다. 영주의 아내는 귀족 처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결혼 준비를 시켰다.

도시에서는 길드(중세 유럽의 각 도시에서 발달한 수공업자들의 상호부조적인 동업 조합)의 도제 제도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도제는

장인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장인의 감독 아래 일을 배웠고, 졸업 작품을 만들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면 길드에 정식으로 가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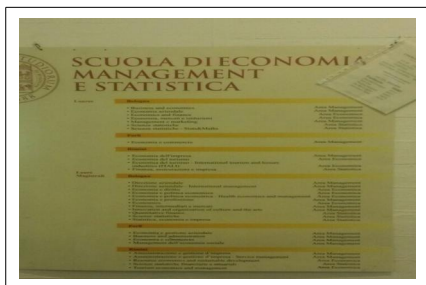
세상에 대학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였다. 그러나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의 초기 형태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 이름(Universitas)에 '모두'라는 의미가 담겨 있듯이 구성원을 보호하고 공통된 교육상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성된 일종의 교육 길드와 같은 것이었다.

설립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볼로냐 대학은 수사학에 있어 표현기술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곳의 교수들은 수사학에 관한 중요한 저작들을 많이 남겼다.

특히, 11세기에 접어들어 이탈리아의 법학자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피상적인 내용의 로마법 필사본에 불만을 품고 법을 좀더 깊이 연구하여 시대의 필요에 맞게 개정하기를 원하였는데, 볼로냐 대학은 이러한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후, 법의 개정안이 유럽 사회 조직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을 인정받아 볼로냐 대학은 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서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그 명성이 더욱 드높아져서 유럽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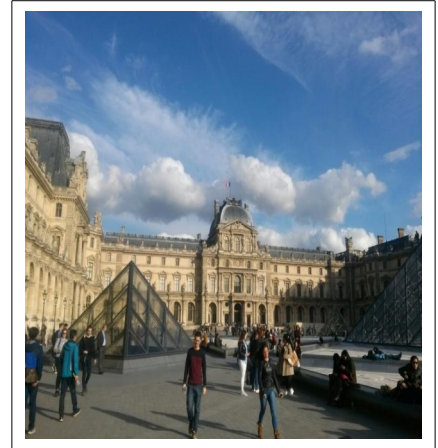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이대학교에서 인체 해부학을 최초로 시도 하였다.



4.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박물관

루브르 궁전은 800년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세의 성에서 프랑스의 역대왕의 궁전까지 그이후로는 미술관으로 그 건물 양식이 발전해왔다. 원래는 궁전으로 중세부터 프랑스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의 한부분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국제적인 명성에 힘입어 궁전보다는 미술관으로서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1747년 왕의 컬렉션들을 감상할 수잇는 “뮤즈의 궁전”으로 불리우면서 박물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고 하니 그 예부터 박물관의 기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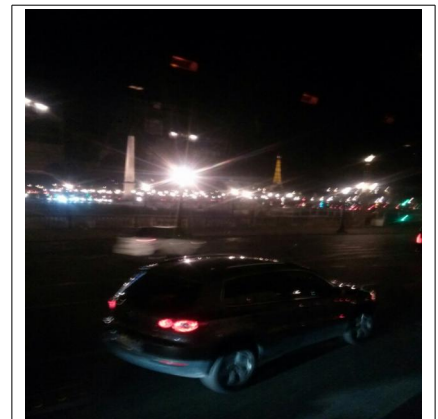
현재는 페이지가 설계한 유리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루브르를 대표한다. 루브르의 대표적인 작품은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 들라크로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 등 수많은 유명한 예술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5. 상제리제 거리 및 콩코드 광장

- 상제리제 거리는 파리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이 2km의 대로이다. 개선문을 기준으로 뻗어 있는 12개의 방사형 길중에 정면에 있는 가장 큰 길이의 거리이다
- 콩코드 광장은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이름은 루이 15세 광장이었고 1792년에는 레블뤼시옹 광장이었다가 1830년에 지금의 이름이 확정 되었다. 테뢰르 통치하에는 교수형 장소로 이용되어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앙트와네트를 포함한 1.119명의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은곳 이기도 하다. 이광장은 1755년에서 1775년 사이에 양쥬 자크 가브리엘(1698~1782)에 의해 설계되었다. 난간으로 둘러싸인 도랑으로 만들어진 8각형으로 설계되었으며 프랑스의 대표적 8개 도시를 상징하는 8개의 동상이 광장을 장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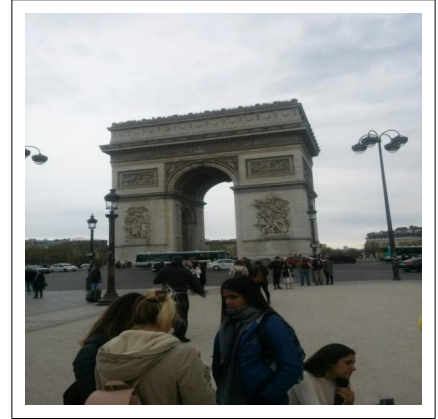
장밋빛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광장 중앙의 오벨리스크는 230톤의 무게에 23m의 높이인 이 기둥은 원래 이집트 룩소의 테베사원에 있었던 것을 1831년 이집트의 고관 무하마드 알리가 프랑스에 헌납한 것이다. 기둥에는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다.



6. 프랑스의 역사 영광의 상징인 개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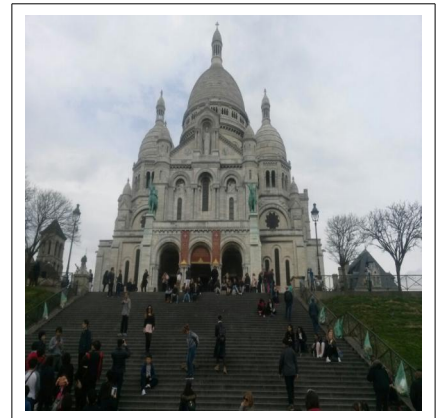
지름 240m 원형광장에 서 있는 높이 50m의 건축물로 프랑스 역사의 상징인 개선문은 콩코드광장에서 북서쪽으로 2.2km 거리에 샹젤리에거리의 끝 부분에 위치해 있다.

개선문은 1806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착공되었으나, 그는 개선문의 완공 전에 사망하였다. 1920년 이래로 1차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의 시신이 중앙 아치의 밑에 묻히게 되었고 매일 저녁 6시 30분에는 이들을 기리기 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7. 몽마르뜨 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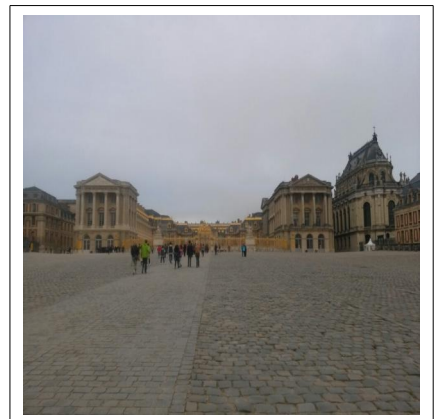
몽마르뜨 언덕에는 로마교회와 관련하여 종교적 의미를 띄우면서도 이 곳에서 시대에 따른 미술 시조의 흐름을 느낄수 있을 정도로 그문화 예술적인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창작과 예술의 장소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항상 계단 한켠에서 그림을 그리는 무명화가들을 볼 수 있다



8. 베르사이유 궁전

“짐은 국가다” 라고 했던 루이 14세가 20년에 걸쳐 세운 궁으로 이후 루이16세와 왕비 마리앙트와네트가 호사를 누리다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비운을 맞은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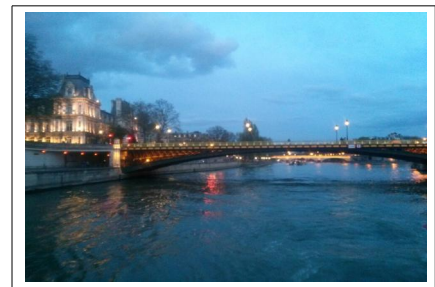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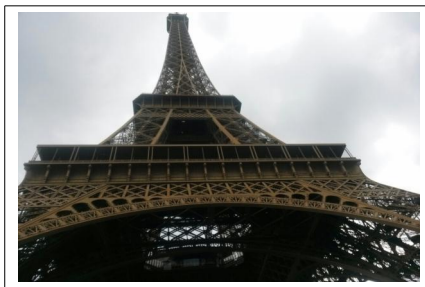
건물의 규모면에서나 절대왕정의 예술품에서나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궁전이라 할수 있으며 100ha나 되는 대정원을 가지고 있다. 주요 볼거리는 왕의 광장, 예배당, 그랑 다파르트망, 거울의 방, 왕비의 침실, 정원, 그랑 트리아농, 포티 트리아농 등이 있다



9. 파리의 상징 에펠탑 및 파리의 젓줄 세느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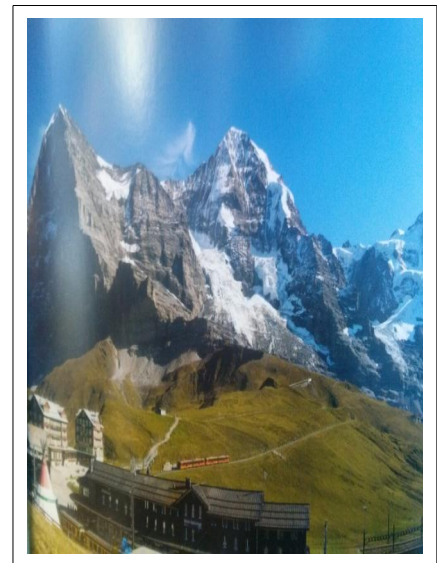
프랑스 혁명 100주년인 1889년에 세운 높이 320.75m의 탑으로 구스타프 에펠이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운 파리의 상징이다. 탑 아래 위치한 샹드마르스 공원 왼쪽에는 나폴레옹의 유해가 있는 앵발리드 그 근처에는 로댕 미술관이 있다.

낭만의 파리를 만드것은 바로 세느강이다. 세느강은 폭은 적지만 강 좌우로 펼쳐진 고풍스러운 건물들,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등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아름답게 치장한 다리들은 세느강의 가치를 배가 시킨다



10. 알프스 영봉중에 하나인 융프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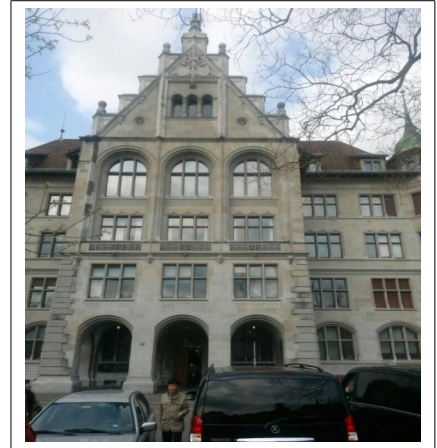
유럽의 지붕인 융프라우 정상은 융프라우요흐라 부르며 처녀를 뜻한다. 높이 3,454m이며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와 그림 같은 호수가 몹시도 아름다운 곳이다. 융프라우요흐를 오르는 톱니바퀴기차는 14년에 걸쳐 아이거와 뮌히를 관통하는 터널 작업으로 완성 되었다. 정상에서는 얼음 궁전, 스프링크스 테라스를 관광 할 수 있다.



11. 국제 금융의 중심지 취리히 / 취리히 주정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로 국제 금융, 경제 및 상업의 중심지로 아름다운 취리히 호수와 리마트 강 주위로 잘 보존된 중세의 건물들, 길드 하우스들이 호화로운 현대적 쇼핑거리와 조화를 이룬 조금은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수없이 많으며, 오페라 하우스, 극장과 더불어 음악회 및 기타 국제적인 행사가 끊임없이 개최된다. 유럽에서 가장 큰 시계가 있는 성 피터교회와 청록색의 청탑과 시계탑, 샤갈의 스테인드글라스가 빛나는 곳 프라우 뮌스터 교회가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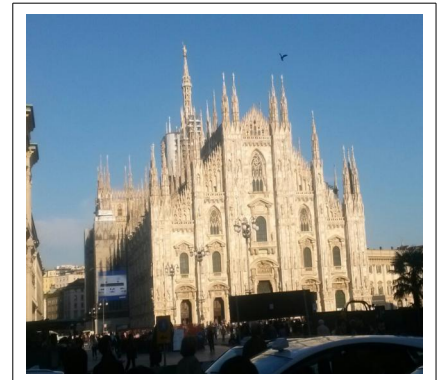


12. 세계 2번째로 큰 이탈리아 고딕 건축의 정수 두오모성당

1862년 건축가 주세페 멘고니가 조성했으며 중앙에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기념비가 서있고 밀라노 시민의 휴식장소로 애용된다. 3,159개의 거대한 조각군으로 장식되어 있고 100m높이의 유리첨탑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길이 157m, 높이 108.5m로 바티칸의 산 피레트르 사원에 이어 세계적으로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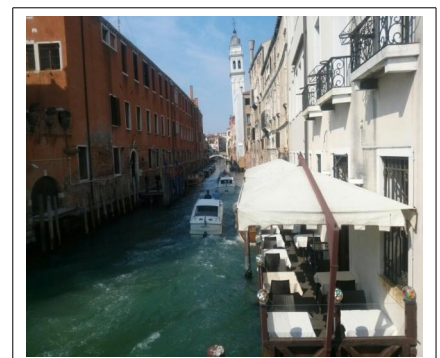
1386년 잔 갈레아치오 비스콘티 공작 명으로 착공되었으며 450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어 19C 초에 완공되었다



13. 해상의 도시이자 물의도시 베니스

바다로 이어지는 석호위에 발달한 “물의 도시”로 역사 깊은 항구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이탈리아 본토에서 약 4km정도 떨어져 있는 120개 정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0개의 운하로 연결된 곳이다. 인구는 약 30만명이다. 이곳의 중요한 관광지는 산 마르코 성당과 두칼레 궁전,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있다



14. 유럽에서 가장 큰 산마르코 광장

이 광장의 역사는 두칼레 궁전과 산 마르코 성당이 세워진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2세기에 운하를 메꾸고 세워지면서 광장이 확장되었고 16세기에는 로마인 건축가에 의해서 르네상스문화와 융합하여 여러 가지 공용건축이 광장주변에 만들어 졌다. 이쯤에서 종탑을 중심으로 한 산 마르코광장이 완성 되었다. 광장의 중앙의 종탑으로 갈릴레오가 천체 관측을 했다고 전해진다.

길이 175m, 폭 80m의 대리석으로 구성된 산 마르코 광장주변에는 회랑이 설치되어 있으며, 광장 입구 정면으로 들어가서 2개의 베네치아 상징인 사자와 엠마누엘레 2세의 동상이 있는 오벨리스크 기둥과 두칼레 궁전, 성마르코성당, 무어인의 종탑등이 있다



15. 베니스 고딕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 두칼레 궁전

9세기경 베네치아 공화국의 총독의 성으로 지어졌다. 현재 외관으로 보이는 궁전은 14~15세기경에 북방에서 전해진 고딕예술이 베네치아의 동방적인 장식과 융합되어서 독특한 양식을 탄생시켰고 이것을 베네치아 고딕이라 부른다. 두칼레궁전은 그 양식의 최고의 걸작으로 일컬어 진다



16. 피렌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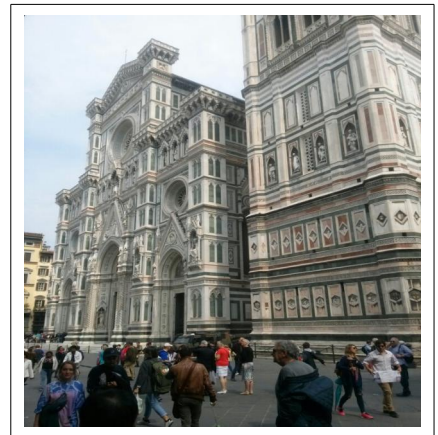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4~15세기 메디치가문의 후원에 힘 입어 르네상스를 꽃피운 도시이다. 약 46만명의 인구를 가진 피렌체는 전체가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두오모 광장을 중심으로 꽃의 성모마리아 성당과 산지오바니 세례당, 단테의 생가, 시뇨리오 광장, 베키오 궁, 미켈란젤로 광장등이 있다



17. 로마. 성베드로광장, 바티칸 박물관

- 로마는 사랑의 도시이며 테베레강 하류에 접해 있으며 대부분이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탈리아 수도로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원한 도시이다.
- 성베드로광장은 베르니니가 1656년 설계해 12년만인 1667년에 완공하였다. 좌우 넓이는 240m이다. 광장 중앙에는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가 40년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우뚝 서 있다. 높이 25.5m, 무게는 320톤이다. 오벨리스크 좌우에는 마테르나와 폰타나가 각각 만든 2개의 아름다운 분수가 있다.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자 베르니니의 대표적인 걸작중 하나이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다. 거대한 반구형 돔이 인상적인 성 베드로성당은 로마 르네상스 건축의 정점으로 평가 된다. 15세기에 교황 니콜라우스 5세가 카톨릭 총본산으로 대변할만한 성당을 재건립할 계획을 세운후 대대로 교황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 들이 총력을 기울여 건립한 르네상스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미켈란젤로의 설계와 구상부터 총 120년간 공사를 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완공하였다.
- 바티칸 박물관에는 넘치는 수장품과 복사품도 작품이다
이집트 관에는 이집트 석상과 람세스의 어머니와 아내의 조각상이 있다. 동물의 방, 흉상의 방, 조각의 방, 뮤즈의 방에는 너무 많은 소장품이 놓아 들곳이 없어 늘어놓아 있다. 바티칸박물관 감상의 절정은 시스틴 소성당이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아담의 창조”가 있다.



18. 대형 원형경기장 콜로세움

네로의 궁전의 뜰에 있었던 인공연못에 AD 72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80년에 완성된 대형 원형 투기장 겸 극장이다. 80개 정도의 출구에 55,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입장 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고대 로마 유적지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최대지름 188m, 최소지름 156m, 둘레 527m, 높이 57m의 4층으로된 타원형 건물이다.

1층은 토스카나식, 2층은 이오니아식, 3층은 코린트식의 아치가 장식되어 있다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① 프랑스 지방공무원 제도 - 셋이상 출산한 여직원 학력조건 면제

- 프랑스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자체적으로 소속 공직자들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임용방법은 공개채용이 일반적이며 자녀를 셋이상 출산한 여성에게는 학력조건이 면제된다. 응시 최저연령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 정년은 65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에서 예산과 정원승인 등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는데 빠른시일내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인사관리를 하고 셋이상 출산한 여직원에게는 1계급 특별 승진등을 할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하였으면 한다.

② 스위스는 천혜의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나라다

- 스위스는 EU에 가입하지 않고도 세계 최고의 부국이다. 100년전에 3,454m의 알프스 정상까지 톱니바퀴기차(산악열차)를 개설하여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대단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때 만년설까지 선로와 터널을 만들어 기차를 운행한 것 보면 대단한 나라이다. 알프스의 높고 험준한 산악의 전국토를 산악열차로 연결해 놓아 전세계 관광객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는 스위스는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③ 물 1통(500ml), 화장실 1회 사용에 1~2유로 사용료를 내야한다

- 우리문화와 다른 것은 물과 화장실이였다. 우리나라는 어디곳에 가든간에 물과 화장실은 무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유럽은 식당에서 생수를 유로로 판매하고, 휴게소 화장실에서도 1~2 유로를 내어야 사용이 가능하였다. 이는 유럽의 물은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반드시 정수를 해야 음료가 가능해서 이다 했다. 우리나라도 몇 년후면 물 부족국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하여 좀 더 소중히 사용하고 아껴쓰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화장실은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면 물이 많이 절약될 것 같다

④ 견고하고 튼튼한 건축물, 승용차가 소형인 나라

- 유럽의 대부분의 건물은 200~300년전에 건축한 건물로 지금도 견고하고 튼튼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는 배워야겠다. 수백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견고하고 튼튼한 문화를 형성했으면 한다.
- 대부분 승용차는 소형이며 주정차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승용차 앞뒤 간격이 너무 좁았다. 출발시는 앞뒤차를 살짝 밀고 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불평을 하지 않고 중세시대의 좁은도로를 잘 이용하고 있는것 같았다. 또한 불법 주정차는 거의 없었다. 법규 위반시 엄청난 댓가를 치루기 때문 이란다. 우리도 좀더 강력히 규제를 하여 질서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